



(대림절 첫째 주일)

1부 09:30 인도: 1부 이종백 목사
2부 11:30 2부 홍순진 목사

- * 전주 | 반주자
- * 예배의 부름 | 시편66:4 | 인도자
- * 개회송 | 찬양대
- * 예배기도 | 인도자
- * 찬송 | 6장 | 다함께
- * 성서교독 | 115(구주강림 1) | 다함께
- * 사도신경 | 다함께
- 영광송 | 310장 | 다함께
- 중보기도 | 1부: 이태선 집사
2부: 권영준 장로
- 응답송 | 찬양대
- 오늘의 말씀 | 사도행전4:36~5:11 (산약p. 193) | 인도자
- 찬양 | 1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 중등부
2부: 구주 예수 의지함이 | 할렐루야 찬양대
- 설교 | 헌신 그리고 헌신 | 박장덕 목사
- 설교후 기도 | 설교자
- 찬송 | 이제 내가 살아도 | 다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 * 봉헌 및 찬송 | 주님 감사해요 | 다함께
- * 봉헌기도 | 박장덕 목사
- 교회소식 | 박장덕 목사
- * 찬양 | 송축해 내 영혼, 부르신 곳에서 | 다함께
- * 축복기도 | 박장덕 목사
- 후주 | 찬양대

© 다음주 기도: I 부: 박요환 집사 II 부: 김성수 장로



15:00 인도: 홍순진 목사

- 찬양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배영희 권사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베드로전서 5:7 | 인도자
- 설교 | 염려를 주께 맡기라 | 홍순진 목사
- 설교 후 기도 | 설교자
- 찬양 | 다함께
- 축복기도 | 홍순진 목사

◎ 다음주 기도: 강순교 권사

수요기도회

19:00 인도: 박장덕 목사

- 찬송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이민향 집사
- 찬양 | 7썸(도담썸)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창세기1:1~2 | 인도자
- 설교 | 생각 너머 생각 | 박장덕 목사
- 기도 | 다함께

◎ 다음주 기도: 임경애 집사 찬양: 8썸(조은썸)

가정예배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찬송	301장	543장	368장	400장	450장	366장
말씀	욘29:1-25	욘30:1-15	욘30:16-31	욘31:1-23	욘31:24-40	욘32:1-22



본문: 요한복음3:31~36
제목: 유일한 위안자

나에게 위안자가 없을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는 이가 없다. 나를 진정으로 챙기고 지키는 이가 아무도 없다. 그럴 때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는 이들은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보다 더 위험하고 차예보다 더 무서운 병이 고독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세례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땅에 속하여 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계시하시지만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헌량없이 나누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물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이들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과 진노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위안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유일한 위안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랑하면 그 대상만 보입니다. 사랑하면 다른 건 안보입니다. 눈을 멀게 해요. 이 많고 많은 사람, 70억 사람 중에 사랑할 사람이 유독 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인다. 사랑할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이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질병이나 행정 총출, 자진 전염병, 핵전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내가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다더라도, 또 모두가 살아남고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나만 유일하게 사망자가 되었다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로 가도록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도록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위안자요, 해결사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잘못했을 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고 위로하고, 해결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위안자인 주님이 계십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영광, 위로와 격려, 평안,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다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더 복을 주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설사 우리 뜻대로 삶의 환경이나, 삶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어떤 불평을 하고, 천하에 몹쓸 죄를 짓고도, 큰 실수를 하더라도, 시인하고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구원자가 없습니까? 위안자가 없습니까? 해결책이 없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구원자가 있고, 위안자가 있습니다. 해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지체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망할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정죄를 당할까? 벌 받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이 되고, 복을 받습니다. 어느 때든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원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바다로 곤두박질치더라도 불만에 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들보다 덜 가졌다고 주눅 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죽겠다고, 한숨짓고 탄식해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지루하게 살아갈 까닭도 없습니다. 왜요?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어떤 일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를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고 복된 것도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 안에는 모든 것 다 주는 목숨을 거는 속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걸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유일한 위안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을 받아 이웃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주관: 손강덕 장로)

Table with 3 columns: 구분 (Division), 안 내 (Members), 봉 헌 (Offerings). Rows include 1부, 2부, and 차량안내.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기관

- List of supported churches and organizations: 사타자교회, 동가튼교회, 동소하교회, 하얼빈교회, 삼자자교회, 철령방주교회, 돈화교회, YMCA, YWCA, C.C.C, etc.

예배모임 안내

Table of church services: 주일낮예배,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오시는 길



경북 안동시 관청길 67 (옥동)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 Staff list: 원로목사 박종석, 부목사 이종백, 교육목사 김영숙, 원로장로 권영만, 은퇴장로 김봉환, 시무장로 박무주, 지휘 박수경, 오르간 신강희, 담임목사 박장덕, 교육전도사 권엘림, 피아노 장은혜, etc.

- Church news items: 환영 (Welcome), 예배 (Worship), 모임 (Meetings), 알림 (Notice), 교인동정 (Church News).

지난주 봉헌

- Weekly offering report: 실일조, 감사헌금, 생일감사, 건축.



2023 포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원교회

36663 경북 안동시 관청길 67(옥동) TEL. (054) 852-5041 / 841-7227 FAX. (054) 852-1307 www.dowonch.com

